

최재훈, '아이들이 행복한 달성' 건설 총매진

아동복지예산 325억편성
아동 돌봄시설 지원 강화
튼튼한 보호막 역할 앞장



최재훈 달성군수가 '아이들이 행복한 달성' 건설을 위해 아동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최 군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의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해 더욱

매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강화된 각종 아동정책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지자체 마련

군은 아동·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동복지지자체를 마련한다. 군은 3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동양육지원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지원과 확충사업에 도움을 준다.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 아동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아동까지 확대된다.

가입 연령은 12-17세 아동이 있었으나 0세부터 가입이 가능, 12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35곳에 5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폭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 달성군 1호점을 지난 7월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 개소, 아동들과 부모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동보호체계 강화

향후 다사 복합행정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에 힘쓴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단가를 8000 원에서 9000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동들의 영양개선에 앞장서, 1900여 명의 아동들이 급식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가정위탁아동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이 4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보호종료아동에 주어지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매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소외된 아동의 자립을 돕고 아동보호체계 강화에 행정력을 모은다. 취약계층 아동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 상호협력력을 통한 내실이 있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 소규모 개별 서비스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동지원사업에 관한 신청 및 문의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및 맞춤형 복지팀이나 희망지원과 드림스타트팀(668-2680~2688, 2690)으로 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재경 영덕군향우회, 설맞이 전통 시장 장보기 행사. 행사는 남후식 재경 영덕군 회장과 45명이 참여, 영해 만세시장에서 설맞이 농·수산물 등을 구매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향 사랑으로 방문한 출향인들을 환영, 고향 발전을 위한 재경 영덕군향우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남후식 재경 영덕군향우회 회장은 "고향 영덕군 발전을 위해 향우회원들과 함께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고향사랑 기부제, 각종 경북 답사와 행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작은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진=영덕군제공) 조여은 기자



! 단체장 일정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7일 오전 경산에 있는 경산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7일 오전 영양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다.

봉화군 '원자력 안전 예산' 지원길 열렸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봉화군민 방사능 사고 대비

봉화군이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군에 따르면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골자로 추진해 온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별도 정부예산 지원 없이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 의무와 책임을 지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재 업무와 주민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35% 중 20% 이하 범위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률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후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봉화군은 석포면과 소천면 일부 지역이 포함돼 방사능 안전사고로부터 주민 보호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 앞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 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생명권·환경권 보호를 위해 백사발간, 전국원전인근지역 세월발굴 및 지역발전 정책방안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그동안 펼친 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 노력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봉화군민의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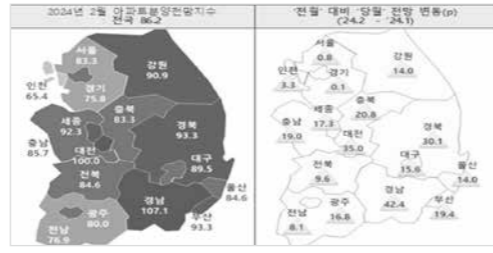
국회의원 뽑을 때 '정당·정책'보다 '사람' 우선

피एम아이 4월 총선 의견 기획조사
후보선택 41.5% 사람 정책 30.3%

국민 10명 중 4명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데이터컨설팅 기업 ㈜피एम아이에 따르면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4월 총선에 대한 의견 기획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에서 후보자 선택시 가장 많이 보는 요소로 41.5%가 '사람'을 꼽았고 '정책'(30.3%), '정당'(27.4%), '기타'(0.8%)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사람(정

당)정책, 여성은 사람)정책)정당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3%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경제'를 꼽았다. 20대 34.9%, 30대 47.7%, 40대 48.9%, 50대 52%, 60대 53.1%로 경제 우려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강원·전남·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경제'가 1위를 차지했다. 고물가·고금리 직격탄으로 침체된 경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일자리'(25.9%), '복지'(17.3%), '환경'(8.6%) 순이었다. 조미경 기자

고령을 밝히는 새로운 활력
고령군의의회는 군민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대구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2개월 연속 상승

대구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80선'을 회복했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월 대구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73.9)보다 15.6p 상승한 89.5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77.3) 기준치 100선이 무너진 이

후 4개월 만에 80선을 넘어선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전국의 2월 평균 분양가격 전망치는 114.1로 전월보다 4.1p 상승했으며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03.1로 12.6p 하락했다.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569억원 투입

태양광 설비 보조금 최대 70~80% 경로당 100%지원, 에너지복지실현

경북도가 도민 생활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 에너지기업 육성에 569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 건물 등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설비는 최대 80%, 복지시설(경로당)은 100%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사업 등을 진행한다.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202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도내 13개 시군이 선정돼 주택 등 3960곳에 3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하나의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에너지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다.

대상 건물은 선정된 읍면동의 주택, 상가,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거의 모든 건물이 지원 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은 국비, 지방비 등 80% 정도가 지원된다.

건물 소유주는 20% 정도만 부담하는 전국 지자체별 공모사업으로 30% 정도를 자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다 주민 선호도가 높다.

도는 2014년 올륜군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2,000여억 원을 투입해 주택 등 2만 1000여

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급했다.

올해는 민간 협업으로 주민설명회, 참여기업 공모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양한 주민수익형 사업을 포함한 2025년도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시군과 함께 적극 참여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는 1849곳에 125억 원을 투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에너지 지원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한다.

지방비 지원 기준이 2~3월 중 결정되면 한국에너지공단(www.knrec.or.kr)의 경북 소재 참여기업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방비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은 올해 복지시설(마을회관)과 중소기업 341곳에 75억 원을 들여 태양광, 태양열(온수/난방) 설비를 보급한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982곳에 보급했다.

마을회관 태양열은 등유사용 보일러 기준으로 연간 260만 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되며, 태양열 온수 사용 농산물건조기는 전기 사용 농산물건조기 대비 81% 정도 소비전력이 절감된다.

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에게 수익이 공유되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교육청, 2024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시행

경북교육청은 '2024 학교급식 분야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 교육지원청과 각 급학교에 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급식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각급학교와 납품업체에 청렴 서한문 발송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직무연수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소통의 장 마련 △식재료와 우유 구매 계약 관련 상시 상담창구 운영으로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패를 근절한다. 민병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시행, 식재료 납품업체와 소통을 강화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대구시, 설 연휴 빈틈없는 의료·방역체계 가동

설 연휴 의료·방역 상황반 운영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600곳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 대구시 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력,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의료 공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보건소에 의료·방역 상황반 10개반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 병의원 683곳과 약국 923곳이 문 연다.

설 명절 당일 10일에는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명절비상진료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34개소 이외에도 동네의원 30곳, 9곳 구·군 보건소 문을 연다.

경증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 및 운영시간을 △대구시, 구·군 및 응급의료

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야간 시간대의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구시 공공약국(삼야·지정약국) 9곳을 운영한다.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995곳에서도 해열·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설 연휴를 전후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비, 동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지난 1월 19~18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와 구·군 보건소에 10개반 40명으로 구성된 상황반에서는 명절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이외에도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뎅기열, 홍역 등의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및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친지와 모임이 잦아지는 만큼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 늘봄학교, 70개 초교 우선 운영...2학기 166개교 추가

대구시교육청, 올해 전면 시행 대비 학교 지원총력

대구교육청은 3월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될 대구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시설·공간, 프로그램 등 학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늘봄학교는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 후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하나로 통합·강화됐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매일 2시간 무상 프로그램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에는 늘봄연구학교(4개교) 등 70개 초등학교에서 먼저 운영을 시작하고 그 외 초등학교(166개교)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2학기부터 운영한다.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

된 초 1학년 예비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대구지역 응답자 1만 242명 중 7767명(75.8%)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 1학년 학부모는 자녀의 입학 학교로 신청하면 된다.

1학기부터 늘봄을 시작하는 70개 초등학교는 설 연휴 직주일일 이달 중순 신입생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그 외 초등학교는 2학기 시작 전인 8월 수요를 조사한다.

학교 현장에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부터 시설·공간 확보, 프로그램 편성, 강사 확보·매칭 등 늘봄학교 업무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인력 분야는 1학기 늘봄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늘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전체 학교에 도입되는 2학기에는 전담 실무인력을 학교에 신규 배치해 기존 교사들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학기 기간제 교사는 학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체 채용을 희망하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구교육청이 일괄 채용한다. 8일 설 연휴 전 선

발·배치가 목표다.

선발된 기간제교사는 대구교육청 주관 연수를 받은 후에 학교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포함한 늘봄업무 담당한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과 환경개선에 지원한다.

아동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2월 초 늘봄지원센터 지원과 기술직 공무원이 학교 현장에 직접 방문해 리모델링 공사와 추가 비용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한다.

교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실, 도서관, 일반 교실 등을 겸용으로 활용하고 교실을 개방한 교사를 위한 교사연구실 구축, 학급운영비 추가 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

강연희 교육감은 "학교의 안전한 공간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 현장에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경감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대구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사진·70) 경북 김천시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김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시직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김시장의 행위는 공정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경북도의회,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예방

권광택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교육청 인구 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권광택(사진) 경북도의회원이 대표발의한 경북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인구소수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 통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



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예산 교육지원 사업

별도 목적 및 조건을 지정 운영·관리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합계출산율은 가인여성 1명당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2020년 시작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권광택 도의원은 "경북도는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⅔ 이상이 인구 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교육청 차원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 기반을 구축,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의회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결의 행사를 가지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굴, 실행한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청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8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경주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나선다. 친환경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

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콘덴싱 가스보일러다.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대당 6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 100대의 보일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거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ecosq.or.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 '덕일산업' 450억 투자

2026년까지 경주시 안강 검단일반산업단 공장 신설

강소기업 덕일산업이 경주시 안강읍에 신규 고용 80명을 창출하는 전장부품공장을 짓는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덕일산업㈜과 45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덕일산업㈜ 유

기덕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으로 덕일산업은 경주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2만㎡ 터에 내연차 및 전기차용 전기전자 제어기 부품 공장을 짓는다. 2026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차량용 시트 파워 모듈 스위치를 포함한 전기차용 전기전자 제어기 부품 등을 생산한다. 신규 인력 80여명을 채용,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덕일산업(주)은 1993년 설립된 자동차용 전자 부품 기업으로 국내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다스, 리어코리아, DSC, 현대엔시트, 현대트랜시스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 기업이다. 덕일산업은 GM, 도요타, 테슬라, 스텔란티스, 타타모터스, 리비안 등에도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 팽택에 본사가 있고, 화성에는 연구소,

필리핀에는 생산 법인이 있다.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 2020년부터는 전기차 부품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아 국내외 자동차 부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덕 덕일산업(주)대표이사는 "세계 최고의 기술중심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할

계획으로, 향후 신설되는 공장에는 경주시민을 우선 채용,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안강읍 검단산업단지를 자동차 부품 등 전문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과 함께 경주시가 구축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를 통해 다양한 기업지원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을마다 설맞이 대청소가 한창이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슬고 닦고 구슬땀

고을마다 설맞이 대청소 슬고 닦고 구슬땀

주민들 모두가 깨끗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천북면 국도변 환경정비
천북면은 설 명절을 맞아 7번 국도변 환경정비를 했다. 환경정비에는 천북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위원,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자율방재단 등 천북면 자생단체 회원 60여 명과 최병준 도의원, 이락우·정원기 시의원이 참여해 평소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모퉁이를 없애고 있던 7번 국도변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 손진열 천북면 자생단체장협의회장은 "설을 맞아 환경정비에 힘을 모아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천북을 사랑하는 회원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 현곡면 설맞이 환경정비
현곡면 행정복지센터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자생단체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현산강변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했다. 환경정비는 현곡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현곡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60여 명과 현곡면 직원들이 함께 구지교에서부터 준공이 예정된 제2금장까지 현산강변을 중심으로 정비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무분별하게 버려진 현산강변과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상일 현곡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현곡면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황남동 청년회, 환경정비
경주시 중부동 청년회는 지역 주민과 귀성객 및

■ 황남동 통장협의회, 환경정비
황남동 통장협의회는 지역 주민과 귀성객 및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문천교 일대를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청년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은 문천교에서 재매정 일대에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와 발길 닿지 않는 풀숲과 도로에 방치된 각종 불법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허삼 청년회장은 "문천교에서 재매정 구간은 경주 관광명소인 오름과 고풍마을을 잇는 주요 도로로서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장소인 만큼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서은숙 황남동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솔선수범해 봉사해 주신 청년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2024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선정 동아리 강사 수당
최대 108만원까지 지원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은 3월 6~13일까지 2024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은 시민의 계속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다양한 학습경험을 평생학습 성장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마련됐다. 평생학습동아리는 일정한 인원의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학습공동체의 한 형태이다.

학습동아리는 10~15개를 선정해 5월에서 10월 까지 동아리당 강사비 2시간 기준 12회씩 산정해 최대 108만원을 지원한다. 학습공간과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도 더해진다. 신청자격은 평생학습포털 경주 웹사이트 등 재된 동아리로 7인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이 자발적인 정기모임을 구성해 학습과 토론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 동아리 회원 중 70% 이상이 경주시민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평생학습포털 경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평생학습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학습포털 경주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평생학습가족관(054-779-89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집 건강한 식생활 경주시, 원장 등 집합교육

경주시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가 6일 시청 앞천출에서 지역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집합교육을 가졌다. 교육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시설장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먼저 지난해 사업성과와 올해 사업에 대한 중요 내용을 전달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및 보육시설 지도점검 등을 안내했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기원하는 계몽운동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진로교육센터 진로진학 정보 제공

23일 학부모 진로 특강
고준우·필립 강사 초청

경주시가 오는 23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학부모 진로특강을 개최한다. 진로특강은 진로진학 전문가를 초빙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이해와 준비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고준우 강사의 '문해력이 답이다'를 주제로 교과목별 문해력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이어 필립 강사의 '고등학교생활과 입시'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참석은 예비 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전신청은 이달 20일까지 경주시 청소년진로교육센터 누리집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배경혜 이동청소년과장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예비 고등학생들이 입학 전 교육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학진로와 입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청소년진로교육센터는 2021년 4월 개소, 청소년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 부모교육, 대학입시 설명회 및 진학컨설팅 등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

포항 울진
영덕 울릉

울릉 고향사랑기부제 제4호 고액기부자 나왔다



재경영덕군향우회, 설맞이 '고향사랑' 전통시장 장보기

재경영덕군향우회 회원 40여 명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5일 영해만 세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영해만세시장 정경환 상인회장과 상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물가지미, 농수산물, 제수용품 등 고향 영덕의 특산물을 구입하고 시장 곳곳을 방문했다.

재경영덕군향우회 남후식 회장은 "향우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김광열 영덕군수님과 시장 상인회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를 통해 회원들의 애환심이 더욱 고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조여은 기자



포항시, 설 명절맞이 지역 군부대 찾아 위문품 전달

포항시는 지난 5일 해병대 제1사단 등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30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농협포항시지부, 지역농협조합장들이 지역에 주둔하는 군장병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돼지축산물 교환권, 초코파이 등 위문품을 군부대에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장 부시장은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군부대와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군장병들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항시와 지역금융단체에서는 매해 명절마다 군장병 위문품 전달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창명 기자

박재호 아주대학교병원 행정부원장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제4호 고액기부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박재호 아주대학교병원 행정부원장(이노를 대표이사)이다.

그는 지난 2일 울릉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울릉군 제4호 고액기부로서, 연초부터 이

어지는 고액기부로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순풍이 불고 있다.

박재호 부원장은 울릉군이 고향으로, 2004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코리아와이즈넷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는 기업인 출신이다.

그는 "제 고향인 울릉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모금액 의미있는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출향 후에도 고향 울릉군을 잊

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출향 인사들의 기부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일 현재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106.3%라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모인 모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뜻깊은 기부 활동"이라며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더

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담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이다.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담례품으로는 오징어, 호박엿, 명이절임, 울릉사랑상품권, 돌미역 등이 있다. 정윤환 기자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울릉 실현" 울릉군 설 명절 맞아 청렴서한문 발송

울릉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5일부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계약·인허가 분야 등 업체 대표와 민원인 300여명에게 발송했다.

이로서 군의 청렴다짐과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청렴서한문은 각종 업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사태에 대한 엄정 조치 의지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 할 경우 울릉군 누리집(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신고센터나 기획감사실 감사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릉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반부패 청렴 특강, 청렴 관련 규정 및 신고처리에 대한 자문 등이 포함된 '울릉군 맞춤형 청렴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의 무임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청렴한 울릉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등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정윤환 기자

설 연휴 포항에서 즐기세요... 관광객 맞이 풍성한 이벤트

민속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포항시는 설 연휴 동안 포항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관광지 대부분을 정상 운영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동안 △스페이스워크 △이거리 닷 전망대 △포항운하 등 대표 관광지와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는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영한다.

또한 △국립등대박물관 △시립미술관 △구룡포과메기문화관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 등은 설 당일인 10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관광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오는 11일 칠길숲 오크광장에서는 '거주 외국인'과 함께하는 K-전통놀이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웃놀이 △투호 던지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존을 포함한 △한복 입어보기 △MBTI별 관광지 추천반기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행사 참여 인증 및 후기 남기기 SNS 이벤트를 실시하며,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내 귀비고에서도 설맞이 프로그램 '날아라 청룡의 꿈'이 진행된다. △연 만들기 체험 △민속놀이 체험 △소원지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운영하며, 11일에는 150여 개의 전통 줄연을 날리는 행사

가 진행된다.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는 여행자플랫폼 피어라운지에서는 계획공모형사업 대표 캐릭터 모리, 계골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는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날 당일을 제외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며 SNS 이벤트에 참여하면 피어라운지 굿즈를 받을 수 있다.

구룡포생활문화센터에서는 아라예술촌 입주작가 5명의 다채로운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 '아라, NEXT'와 전통놀이, 보드게임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에서도 도예, 캔들, 플라워, 민화,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정창명 기자

설명절 대비 종합대책... 걱정 없이 든든하게~

울진군은 설 연휴 기간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설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부터 설 명절 대비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합동 점검, 위생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 귀성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정비 등을 사전 준

비를 시작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걱정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5일 설과 소장 및 읍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설맞이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응급의료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교통수송 대책 등 9개 분야 31개 중점과제를 수립했다.

또한 연휴 기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설 연휴 응급진료 기관 및 당번 약국을 운영해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갑작스러운 강설 시에도 도로관리청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도로 제설작업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자

영덕군, 농업인 실용교육 성료

영덕군은 농업인들의 기술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시행한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사과, 수도작, 양봉, 복숭아, 포도, 토양환경, 배, 농기계 등 8개 과정으로, 500여 명의 관내 농업인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및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통해 각 품목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강의를 펼쳐 교육의 실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대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의 현장성에 입각해 적기에 필요한 품목별 영농교육을 보급함으로써 관내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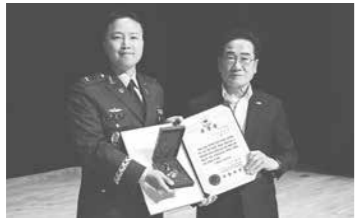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기문 영천시장은 7일 오후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열리는 2024년 시민사회교육개강식에 참석하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대구 군부대 유치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한다.



영천, 6.25참전용사 유가족 화랑무공훈장 전달

영천시는 지난 5일 영천시민회관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김동학 상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하는 전수식을 가졌다.

1926년에 태어난 김동학 참전용사는 25세인 1951년에 입대해 9사단 28연대 소속으로 1952년 11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세운 혁혁한 전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당시에 결정됐으나 전쟁 당시 긴박함과 혼란함으로 무공훈장을 받지 못했다.

최근 국방부와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기 사업'을 통해 수훈 사실이 확인되어 무공훈장이 70여 년 만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호국영웅의 화랑무공훈장을 전해 받은 유가족 감정대위는 "이제라도 6.25전쟁으로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명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예를 소중히 간직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70여 년이 지나야 무공훈장을 드리게 되어 안타깝고 늦게나마 훈장을 전달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영천시의회, 설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영천시의회는 지난 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의원들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나자렛집, 마야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휴지, 라면,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하기태 의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전달되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며 사랑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천, 맞춤형 복지로 복지사각 없앤다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영천시는 '시민중심 공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공공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안전망 구축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실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간복지 자원 의뢰 등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연계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위기가구 45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방문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간다.

■ 지정기탁 성금 활용 시민체감형 시책 추진

시는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조성에 힘쓴 결과 2023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모금 기간 동안 총 9억9200만원(198% 달성)을 모금해 역대 최고 금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탁된 성금의 일부를 활용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은 '영천형 긴급복지지원', '65세 미만 틀니, 임플란트 지원', '거동불편자 일상생활 불편해소 사업', '결식우려 가정 밀반찬 꾸러미 지원'까지 총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독사 예방 체계 선제적 구축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과 중장년 1인 가구 268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024년 '셀프안부폰'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가 1일 1회 자율적으로 지정된 전화번호로 발신해 안부를 확인하고, 2일 이상 안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 시민의 기초 생활을 두텁게 보장하는 기초 생활보장제도

영천시는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 대상자는 영천시 인구의 약 7.89%인 7911명으로 연간 약 248억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에 따른 장제 및 해산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

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5180여 명으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비·약제비를 약 417억 원의 의료급여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틀니 및 임플란트를, 등록 장애인에게는 보조기구 구입 비용과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7월 제1회 의료급여 사업 사법지리 선정됨에 따라 장기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일·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시는 경제불황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영천지역자활센터는 7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7개 자활기업 지원을 통해 현재 11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단 발굴과 기존 사업단에 대한 확장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및 소양 교육, 자활사례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활사업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신속·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

영천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의 각종 공적 보장 자격의 적격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변동 자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보장 포함 사회보장급여 신청 8708건을 비롯해 14개 복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망·전출입 등 변동사항 4만 7896건, 소득·재산 변동사항 4883건의 적격성 심사를 했다. 이는 국제청 등 25개 공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매월 수시 조사는 물론, 연 6회의 단주기 조사, 연 2회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시는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및 철저한 자격관리를 통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며, 동시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도 힘쓸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으로 따뜻하고 내실 있는 보훈업무 추진

영천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예우 향상을 위해 2천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15개 보훈·안보·기타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 6.25 기념식, 영천대첩 기념식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의 시비 부담분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고 3월 중 2024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보훈정신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관내 15개 보훈·안보·기타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문화탐방, 국내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 및 단체별 건의사항 논의 등 연중 보훈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해 일선 복지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적기에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에 2024년에도 소외되는 이 없이 시민 모두가 격정은 달고 행복은 더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복지전달 체계의 기틀을 바로 세워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을 펼쳐나갈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청도군,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 공모 선정

1억5천 원... 관광콘텐츠 육성

청도군은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서 주관하는 '2024년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사가 전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컨설팅과 집중 홍보를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도군과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예산 약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이 청도군 대표 강소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1년간 관광지 컨설팅, 관광상품 발굴, 다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8년 개관한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은 화랑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관광시설로

지난해 8월 스카이트레일(다층형 복합 로프 레포츠) 개장으로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관광지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이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와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산시, '차세대 위한 나눔교육' 간담회

사업의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경산시는 지난 5일 나눔교육 전문 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차세대 위한 나눔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차세대를 위한 나눔교육'은 노내에서 경산시가 유일하게 진행 중인 나눔문화 교육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전문 강사들을 파견해 타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나눔의 의미에 대해 전문화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나눔교육은 '나눔의 이해: 나눔이 뭐예요?(나눔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찾기) 나눔의 필요성: 나누면 모두 행복해요(나눔 관련 동화구연) 나눔 실천 탐색: 우리도 나눔 수 있어요!(친구, 형제자매에게 할 수 있는 나눔과 배려)를 주제로 총 3차시로 구성돼 주 1회당 30분씩

3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관별 일정을 안내하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점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눔교육 강사들은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경산시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모색해 경산시가 착한 나눔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차세대를 위한 나눔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은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90)로 신청하면 된다.

신경은 기자

고령군,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고령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5일 동산실버요양원을 방문해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며 종사자들의 시

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며 "어려운 여건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외 계층과 더불어 잘 살고 정이 가득한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령군은 매년 설·추석과 연말에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진심 어린 나눔으로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정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영백 기자

경북

김천 희망대로 개통, 교통난 해소 & 도시개발 촉진



김천시청~유한김벌리~혁신도시 간 도로 개통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김천시는 희망대로 개통으로 지역경제에 청신호를 켜게 됐다.

지난 5일 "시청-유한김벌리-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인 김천 희망대로 개설 공사 개통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시는 잔여 공정(부체도로 등)은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노선은 기존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지방도 514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원도심과 신도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했다.

총연장 5.64km, 총사업비 1521억 원을 투입한 단일 시군에서는 초대형 도로개설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지역구 송언석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9년 경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돼 국도비 269억 원을 확보했다.

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도의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피력하여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김천 희망대로 공사 구간의 주요 시설물로는 교량 6개소, 교차로 3개소, 도로 연장 3.04km, 폭 20m(4차로)이며, 감천을 횡단하는 343m의 신김천대교는 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된다.

김천시청-혁신도시 간 도로가 개통되면 신읍동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의 교통축을 형성해 자동차로 25분 걸리던 것이 15분이면

도착한다.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애원 일대 대신지구 도시개발과 신규로 조성 중에 있는 김천 일반산업단지 4단계 분양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소득증대에 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구 부시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기존 지방도로 다니던 교통량 분산 효과와 통행 거리 단축으로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며, 향후 달봉산 터널 건설사업과 지좌동 우회도로-호동마을 연결도로 사업과 연계되어 시청, 법원, 종합스포츠타운,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김주수 의성군수, 분야별 사회단체와 릴레이 간담회

의성군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의성읍 온누리터에서 125개 168여명의 사회단체장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다.

군은 안보·보훈, 봉사, 체육, 농업, 안전 등 9개 분야별로 군정 주요사항과 분야별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성군은 2024년 7대 추진과제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 통합 돌봄체계 구축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 구축 △청년 정책 고도화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 △의성관광의 새로운 전기 마련의 주요 내용과 함께, 분야별 현안을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예산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의회, 갑진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의성군의회는 갑진년 설을 앞두고 지난 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매년 실시해온 위문은 금성 카리타스 요양원을 비롯한 10개소에 방문해 마음을 담은 위문품(쌀, 라면, 휴지)을 전달하고 올 한해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광호 의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과 현장중심의 소통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문경시, 설날 설맞이 군부대·소방서 위문

문경시는 지난 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육군 제3260부대 2대대와 문경소방서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현장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각종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시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든든한 지역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장병들과 현장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동수 기자

문경돌리네습지, '세계 람사르습지' 지정

우리나라 25번째, 경북도 최초 지정

문경시는 '문경돌리네습지'가 2일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북면에 위치한 문경돌리네습지는 우리나라 25번째이자 경북도 최초로 국제적으로 지정된 중요한 습지다.

전 세계 람사르 습지 2503곳 중 돌리네(doline) 지형 또는 돌리네가 2개 이상 연결돼 움푹 패인 우발라(uvala) 지형에 발달한 습지는 이번 문경돌리네습지를 포함해 총 6곳뿐이며, 국내에는 유일하다.

문경돌리네습지는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형에 습지가 형성된 세계적으로 희귀한 습지다.

원양,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과 수달, 담비, 삿대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그리고 낙지다리, 꼬리진달래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을 포함하여 93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돌리네(doline)는 석회암지대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지하수 등에 용해돼 형성된 점 시모양의 움덩이(와지)로 빗물 등이 지하로 배수가 잘 되어 통상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는 지

역을 말한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생태·지질학적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람사르습지 지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전해야 할 습지로 인정받은 것이다.

람사르습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를 말한다. 람사르협회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징을 가진 곳이나 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돌리네습지의 람사르 습지 지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습지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습지를 찾는 사람들이 희귀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선포

상주시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자원봉사자, 국민운동 3단체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선포식을 가지고 첫 활동으로 연탄나눔 활동을 펼쳤다. 온기나눔은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국가적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경북도에서는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로 기획해 21개 시군에서 나눔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상주시는 취약계층 67세대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배달과 온열매트 및 난방유를 전하며 온기나눔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후 설 명절 전까지 국민운동 3단체 및 자원봉사단 50명은 읍면동 추천 가정을 방문하여 이웃의 안부 확인과 더불어 온기나눔박스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세계 속에 우뚝 서다

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박차 전국 유·청소년 축구 등 16개 전국대회 예정

구미시가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세계우뚝 선다. 시는 매년 평균 20여 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대회 개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지난 2021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2년 12월에는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유치에 확정지으며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구미 체육은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준비 박차

구미시는 지난 24일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명예조직위원장, 김장호 시장·육현표 대한육상연맹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구성된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종합계획, 시설 및 인프라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대외협력체계 구축 등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이자 권위 있는 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1975년), 인천(2005년)에 이어 3번째 개최이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구미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25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아시아 45개 국가, 45개 종목에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구미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로 도민화합 및 지역경제활성화

올해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구미에서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30개 종목이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경북 22개 시군 약 1만 2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2012년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이후 12년 만에 구미에서 다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구미시는 선수들에게 최상의 경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체육시설과 숙박점, 음식점 등을 사전 점검하고 먹거리와 무대공연, 전자제, 개폐회식 행사, 드론쇼 등 대회 전부터 다양한 문화행사가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300만 도민의 화합을 이끌어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2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개최

올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구미시 일원에서 '제32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풍부한 전국대회 개최 경험과 국제대회 유치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6일 경북 도내 최초로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유치를 확정했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중일 각국에서 11개 종목, 총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체험과 더불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시는 올해 16개의 크고 작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폭염 속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운영으로 호평을 받은 'F-LEAGUE 여름 축구 축제'를 올해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월 중 3일간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전국 유·청소년 축구클럽 250여팀 3000여 명이 참가해 연령별 축구경기, 문화행사 등 즐길거리가 다양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여름축구 축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구미대교 아래 낙동강변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휴거장 5면 중 3면을 공인규격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 중이며, △구포동 국민체육회도로 교량 하부 공간에 도심형 펌프트랙 △동라공원 일원에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구평동 일원에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국비 51.6억 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시설(박정희체육관 등 3개소)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시는 매년 생활체육교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전문체육 지원, 시청 운동선수단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스포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전국대회와 국제 대회 유치 등 점차 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며, "구미시는 제62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시작으로 제32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까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이라고 했다. 이은진 기자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권기창 안동시장은 7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전략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7일 오전 관내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2024 설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7일 오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아젠다 TF 현장담화회'에 참석한다.

영주시 출향인 고향후배 사랑



영주시 출향인 2명의 고향 후배 사랑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재)영주시민재육성장학회는 신승영(주예이텍) 대표(2천500만 원), 송동춘(썬풍전비철 회장(2천500만 원))이 인재육성장학금 총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에 출향 기업인인 신승영 대표(2천500만 원), 송동춘 회장(2천500만 원), 정달홍(썬성보엔지니어링 대표(2천만 원), 이희정 진성종합상운(주) 대표(1천만 원))가 영주시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인재육성장학금 8천만 원을 기탁하고 향후 4년간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특히 신승영 대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재육성장학금 1억 원 이상 기탁해 출향기업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상기 기자**



청송군새마을회, 봉사활동 앞장서

청송군은 지난 3일, 청송군새마을회에서 최근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방문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월 31일 파천면에서 발생해 해당 가구는 주택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돕기 위해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탐색해 마을의 빈집을 연계해 줬다.

청송군새마을회에서는 빈집을 청소하고, 도배와 장판 교체 및 전기 가보일러 수리 등의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가구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다. 파천면새마을회에서도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윤병문 기자**

안동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11개 분야 120여 명 종합상황실 운영 공영노상, 옥동 등 유료주차장 무료개방

안동시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5일 권기창 시장 주재로 2024년 설 명절 대비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을 비롯해 재난안전관리, 응급의료 대책, 도로, 교통수송, 환경관리 등 11개 분야 120여 명의 비상근무자를 편성해 각종 사건 사고 및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민생안정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안동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물가

안정 홍보캠페인 실시 △농·축·수산물 등 설 상품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중 24시간 응급의료기관(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원)이 운영된다.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병원 및 약국 명단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공영노상, 옥동, 터미널, 시장공영, 옥부공원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귀성객과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청소·환경 관리반을 운영하여 시장·상가지역 등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연휴 전 쓰레기 수거하고, 연휴 중에는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을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생활 쓰레기는 설 당일(2월 10일)에는 수거가 되지 않는다. 오는 9일에는 쓰레기 배출 자제가 요구된다.

이외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을 방문해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위문 활동을 실시하며, 설 연휴 첫날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맞이 인사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설 연휴 동안 안동시민과 안

동을 찾는 귀성객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전 부서의 행정력을 집중해 각종 도로, 환경 등에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영주시,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체제 돌입

71건 1235억 면밀히 검토
정부 정책과 시 현안사업
연계 신규사업 중점 발굴

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날 전략회의를 통해 2025년 국가 투자예산 건의사업으로 도비 사업 포함하여 71개 사업 1235억 원을 발굴하고 정부 정책과의 적합도,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42억 원 △우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9억 원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사업 18억 원 △영주 하트섬 산악형 액티비티 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12억 원 등 36개 사업 316억 원 규모다.

계속사업은 △가흥정수장 개량사업 140억 원

△영주시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 73억 원 △영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 64억 원 △영주램프 레포츠허 조성사업 58억 원 △육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억 원 △영주 첨단배어업 국가산단 진입도로 50억 원 등 35개 사업 919억 원으로 안정적 국·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장기적 비전을 갖고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하며, "부처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한발 앞서 준비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독려했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옥묘기 고추재배 현장관리지도

"옥묘상 온·습도 관리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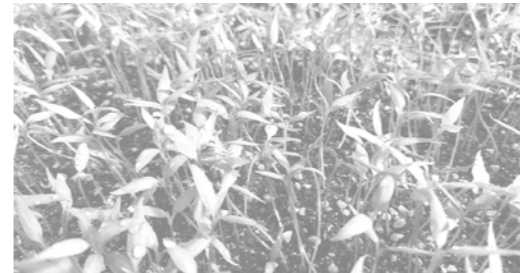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저온기 고추 옥묘상의 적정 온·습도 관리로 옥묘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에 나섰다.

일교차가 심한 고추 옥묘시기에 옥묘상 온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저온이나 고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건전한 고추묘 생산의 적정온도는 낮에는 25~28℃ 정도, 밤에는

15~18℃ 정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옥묘장 안의 고온 다습한 조건으로 인해 묘가 웃자라거나 병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의 관수와 환기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은 많이 주면 웃자라서 병을 초래하고, 부족하면 굳어져서 생육이 억제되므로 저녁 때 모판의 상태 표면이 뽕얇게 말라 있는 정도가 좋다.

저온기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번에 뿌리 밑까지 젖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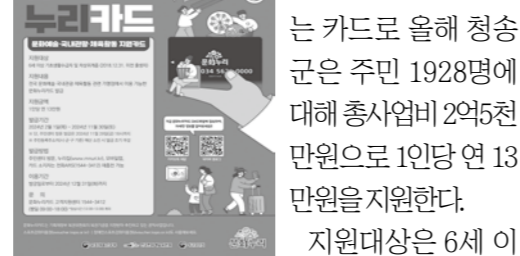
또한 보온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영하의 온도에서는 잎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만일 옥묘 중 저온피해를 받았을 경우 응급 처리로 요소 0.3%(물 20L 당 요소 60g) 액을 엽면 시비하여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로 문화를 누리세요~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실시

청송군은 지난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진행해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올해 청송군은 주민 1928명에 대해 총사업비 2억5천 만원으로 1인당 연 13 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세 이

상(2018. 12. 31.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2만원 증액된 1인당 13 만원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이용하면 쉽게 발급 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연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사업은 문화 사각지대 가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촘촘한 문화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병문 기자**

예천군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및 배수로 관리' 홍보

예천군은 6일 예천읍 상설시장 일원에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및 배수로 및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직원들과 ㈜에코비트위터 및 푸른예천환경(주),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 직원들이 함께 했으며, 전단지 등을 주민과 점포에 배포하며 물티슈 등 오물의 하수도 배출 방지와 배수로 및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예천군, 설 연휴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 대비

예천군은 설 연휴 기간 중 관내 병원과 약국 중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해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주민과 귀성객들이 연휴기간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예천권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예천소방서와 연계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속히 안내하는 등 긴급 지원 태세를 갖춘다.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은 군 홈페이지와 보건소·지소·진료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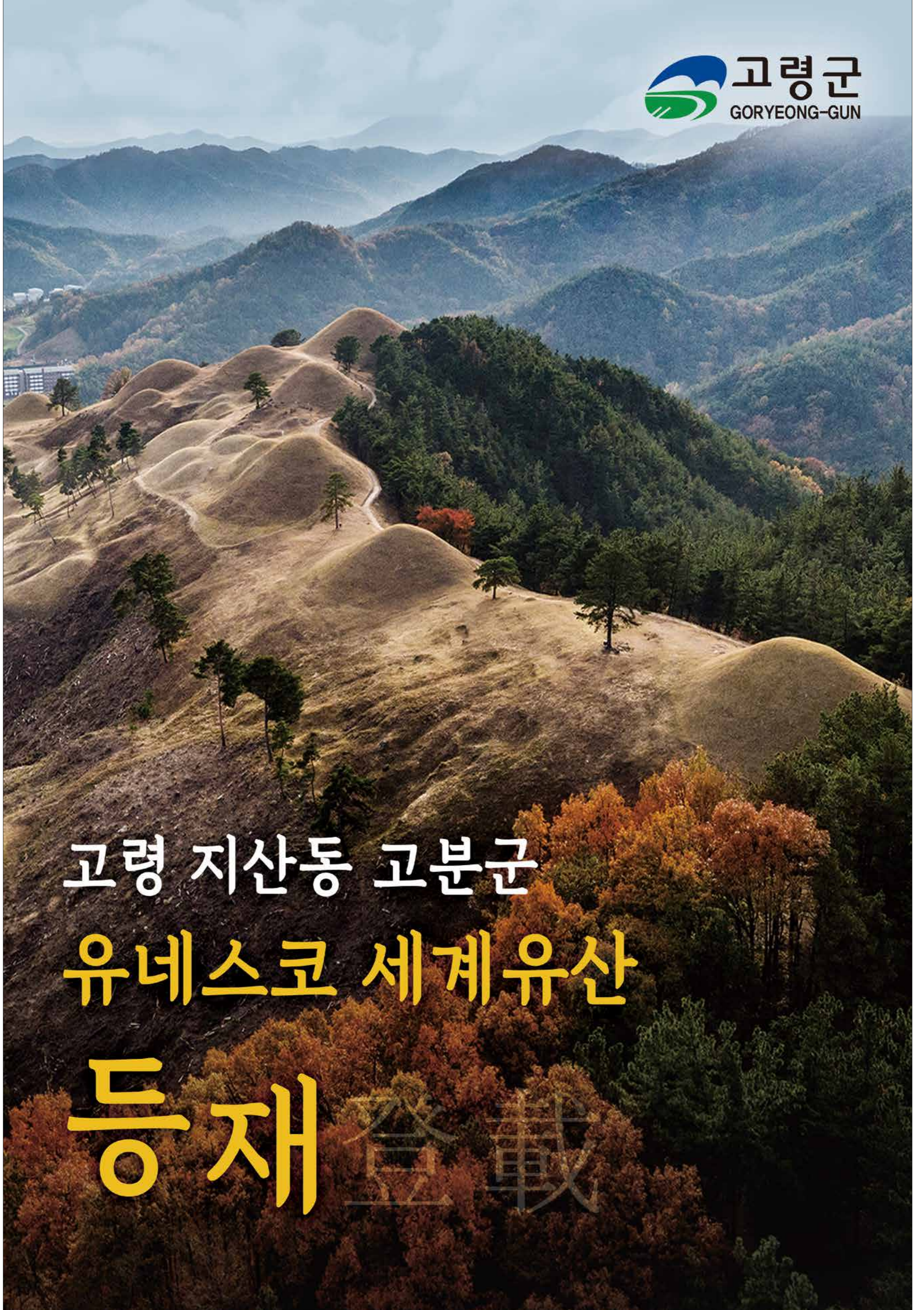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설 연휴 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으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병·의원 및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안내 등은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간단한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20곳(보건소 홈페이지 게시)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안병욱 기자**

하다고 강조했다. 맑은물사업소 이병일 소장은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과 배수로 및 빗물받이 정결 실천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냄으로써 주민 환경 보전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登載